

오전(1부, 노량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봉우컬럼

훌륭한 통역관

나는 외국어에 능한 자가 아닌지라 해외집회 때는 항상 통역관을 대동한다. 영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몽골어를 비롯해 세부처럼 지역 언어까지 치면 정말 많은 통역관이 필요하다.

그런데 통역관이라고 다 유능하지는 않다. 통역을 정말 잘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회중이 내 말을 잘 이해하기 어렵게 통역하는 자도 있다. 그 기준이 뭐냐면, 내 말을 쉽게 통역하느냐, 아니면 어렵게 통역하느냐. 통역이 능숙지 못한 자의 특징은 통역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통역을 어렵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강사의 말에 괜히 자기 지식을 보태서 자기 실력을 자랑하려다 그런 것이고, 하나는 통역하는 자가 강사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자를 통역관으로 쓰면 망한다. 통역관에 의해 내 설교가 좌지우지되기 때문이다. 통역관에 따라 내가 명설교자가 될 수도, 엉망진창인 설교자가 될 수도 있는 거다. 예수님의 설교는 너무 쉽다. 어린이이도 함께 들을 정도였으니 얼마나 쉽게 설교를 하셨겠는가. 목사는 하나님의 통역관이다. 그런데 통역관인 목사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어렵게 통역한다. 그래서 성도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

왜 그런지 아는가? 예수님 말씀 외에 자기 것을 덧붙이기 때문이다. 말씀에 자기 지식을 넣어 어렵게 만들고, 더는 예수님의 뜻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어렵게 된다. 영적인 것을 문화적인 것, 철학적인 것으로 바꿔버린다. 또 하나,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전하지! 그래서 통역관은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의, 내 지식이 드러나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감동된 자가 기록한 성경을 이해할 수 없어서 제대로 통역할 수 없다. 그것이 주의 종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하는 이유다. 그래야 제대로, 잘, 쉽게 하나님 말씀을 통역할 수 있다.

가장 유능한 통역관은 강사의 말을 가감 없이 제대로, 쉽게 전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종들이 부디 하나님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최고의 통역관이 되기를 바란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전주실내체육관 집회 도중에 누군가 최루탄을 던졌습니다. 또 20여 명의 덩치들이 몽둥이를 들고 휘둘러댔습니다. 그러나 나는 물러서지 않고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회에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집회를 마치고 밤늦게 숙소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여인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차를 운전하던 이후용 집사가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아뿔싸, 뒤따르던 집회 주최 측 목사가 탄 차량이 급브레이크를 밟은 내 차를 피하려고 핸들을 꺾었는데 그만 그 여인을 치고 말았습니다. 나는 차에서 바로 내려

6~7일, 무려 28년 만에 전주실내체육관 집회가 다시 열렸다. 이는 ‘목사님과 함께 멋진 작품을 남기고 싶다’는 전주예수중심교회 담임 박정직 목사의 강청에 의해 이루어졌다. 허나 이번 집회에도 마귀의 공격은 여전했다. 집회 전부터 기독교 연합 측에서는 이단이 전주에 집회를 열었다는 뉴스를 기독교 방송매체를 통해 쏟아냈다. 그러나 그것은 되레 우리 집회를 널리 알리는 홍보가 되었다.

집회 첫날, 단에 서신 목사님은 작심한 듯 말씀하셨다.

“이곳에 이초석 목사가 뭘 하나 보려고

나와 다른 것은 틀린 것이라며 정죄하는 자들이 안타깝고 답답하여 하신 말씀이다. 이어 목사님은 집회에 참석한 이들을 위해 천국과 지옥에 대해 설교하셨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사람은 영존체이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육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이 심판을 받아 예수를 믿은 자는 천국으로, 예수를 믿지 않은 자는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법입니다. 이 체육관을 쓰는 데도 지켜야 할 법이 있듯, 하나님 나라도 법을 지킬 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직



2024 전주실내체육관 집회 광경(6월 6~7일)

인에게 뛰어갔는데 선혈이 낭자했습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당시 동행했던 의사 모세에게 병원으로 빨리 데려가라 하고는 숙소로 돌아와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모세가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다 찍고 검사했는데 아무 이상 없대요.’ 나는 전화를 끊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목회 초기 전주실내체육관 집회를 회상하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다. 목사님은 이 말씀 끝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마귀도 동시에 일한다. 그러니 늘 깨어 기도하라!’는 당부를 잊지 않으신다.

이후 전주실내체육관 집회는 1996년에 한 차례 더 진행되었고, 이번 2024년 6월

기자분들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기자분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기사를 쓰든지 나오는 무관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쓰십시오. 그러나 이것만은 아셔야 합니다. 당신들도, 나도 언젠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이요. 성경에는 분명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행방하는 행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행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막 3:28~29)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귀신이 역사하는 것이라 말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막3:30). 지금 여러분이 한 말, 쓴 글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이 져야 합니다.”

목사님이 그들을 험박하신 것이 아니다.

예수를 통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죽어봐야 알지.’ 할 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 보장됩니다. 천국은 죄와 병과 고통이 없는 아름다운 곳이지만, 지옥은 전갈이 쏘는 아픔,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입니다. 어느 곳을 택하시겠습니까? 예수만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지금 예수 믿고 영접하세요.”

목사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에 이어 ‘이 땅에서 천국 생활하려면 귀신을 쫓아야 한다.’ 하시며 귀신의 정체와 귀신의 작태에 대해 일일이 성경을 찾아가며 가르치셨고,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사 기사와 표적이 이어졌다.(다음 주에 계속)

신묘수 전도사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다



집회가 열린 전주실내체육관



귀신이 드러나 소리를 지르며 요동한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막1:21~39)

나는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 목숨 걸고 전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요14:12). 평신도 시절,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내가 예수님보다 큰일을 할 수 있다니... 정말 그게 가능해?’ 저는 흥분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새기 무섭게 제가 운영하던 인복 유치원에 갔습니다. 차 선생을 만나기 위해섭니다. 차 선생은 제가 운영하던 유치원에서 일하던 분으로 사람의 형체 정도만 겨우 알아볼 정도로 시력이 안 좋았는데, 열악한 가정환경에 도움을 주고자 유치원에 취직시킨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확무오하다

한참을 기다리니 차 선생이 출근했습니다. 저는 차 선생을 무조건 유치원 지하 소강당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차 선생, 예수님 믿지?” 그는 모태 신앙인이었으니 당연히 믿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도 믿지?”, “네.”, “그러면 믿는 자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다는 것도 믿나?”, “네.” 차 선생의 대답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소경된 귀신아 나가!” 하며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명령했습니다. 차 선생은 식전 땀바람부터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을 겁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고래고래 소리를 쳤는지 출근한 유치원 교사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지하로 다 내려왔습니다. 아마도 이사장이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돌아왔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게 두 시간 정도 흘렀을까, 갑자기 차 선생이 억억 소리를 지르며 넘어지더니 귀신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손에 침을 뱉어 그의 눈에 바르고는 ‘눈은 밝아질지어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차 선생, 뭐가 보여?” 하자, 차 선생이 “철판에 그려진 오선지가 보입니다.”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차 선생을 데리고 교사들이 있는 사무실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차 선생의 눈이 보인다. 차 선생, 저기 철판 글씨 좀 읽어봐.” 그랬더니 차 선생이 철판에 있는 ‘월중행사표’라는 글씨를 읽는 것 아닙니까? 다들 까무러쳤지요. 차 선생의 시력을 다들 알고 있었거든요. 사실 눈 뜬 차 선생도 놀랐겠지만, 더 놀란 건 저였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찌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막16:17~18)는 말씀이 저를 통해 이뤄졌는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정말 성경 말씀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112를 누르면 경찰이 달려오고, 119에 전화를 걸면 소방차나 응급차가 달려오는 것은 믿지요? 왜 믿느냐 하면 경험해봐서 사실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믿는 자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나간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왜 못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라면 성경을 찢어버려야지요. 왜 못 믿는지 압니까?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경험해보지 못했기에 ‘그건 그 시대 예수님이나 하시는 일이지.’라고 단정하

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경험해보지 못했을까요? 그 답은 마가복음 9장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려 물과 불에 자주 넘어지며 심한 경련을 일으키는 아이를 제자들이 어찌하지 못하고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아이를 고치자 상심한 제자들이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라고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막9:29). 이것이 이 시대의 주의 종과 하나님의 사 람들이 능력이 없는 이유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없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귀신을 쫓는 주의 종이 잘못되었다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건 ‘이 전기제품은 110V에 꽂으세요.’라고 했는데, 220V에 꽂아 망가트려 놓고는, ‘이건 사기이고 가짜라고 하는 것과 같 습니다. 저는 평신도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루 4

시간 기도를 쓴 적이 없습니다. 집회에 나가면 7시간 이상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저 역시 귀신을 쫓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역사는 반드시 일어 납니다. 저는 집회에 나가면 “오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는 가짜 목 사요.”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죽기 살기로 기도하겠습니까? 대통 령이 만나자고 해도 안 갑니다. 재벌이 찾아와 집회 비용 전체를 대겠다고 해도 안 만납니다. 오직 기도만 할 뿐입니다. 해외 선교 일행인 한은택 목사가 제 호텔 방에

들어와 보니 침대에는 들어간 흔 적도 없이 침대 밑에 타 월 두 장이 겹쳐 있고 무릎 자 국만 있 었 다 는 글

을 썼 지요? 정말 그 래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온도계와 같이 정확합니다.

총구에 녹이 슬었는데 총알이 어떻게 나 갑니까? 무기가 녹슬었는데 상대를 어떻게 죽입니까? 귀신의 밥이나 안 되면 다 행이지요. 기도하게 되면 성령이 충만해 지므로 바울의 옷자락만 만져도 귀신이 나가는 겁니다(행19:11~12). 머리에 손만 얹어도 병이 떠나는 겁니다. 총알이 장전되어 있고, 총구가 녹슬지 않았다면 아 이가 방아쇠를 당겨도, 할머니가 당겨도, 초신자가 당겨도 총알은 나가게 되어 있 습니다. 누구든지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 면 귀신을 쫓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 셸고, 그대로 행하면 반드시 이뤄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다 사실입 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 로 다 이뤄집니다. ‘안 이뤄지던데요?’ 하 시는 분들, 뭔가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 님의 말씀에는 단서가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도해야’ 이런 유가 나 가듯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 십니다. 천국 가려면 꼭 예수를 믿어야 하

고(행4:12),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복 이 줄줄 따라오고(신28:1~14), 십일조를 해야 하늘 창고가 열려 쌀을 곳이 없도 록 복을 받고(말3:10~12), 여러분이 먼 저 남을 용서해야 용서받고(마6:14), 부 모를 공경할 때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 게 되고(엢6:1~3)...

전제조건이 지켜지면 하나님은 지체치 않고 당신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을 안 하니까 하나님 이 일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 짓말쟁이라 안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 능력이 다 소진되어 못하시는 게 아닙 니다. 행치 않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무능력자요, 거짓말쟁이가 되고, 성경이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진실로 우리에게 말씀 하십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의 일점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 니하고 다 이루리라”(마5:18), “너희는 여 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 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 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 음이라”(사34:16).

제가 단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으려고 세계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제 궁극적 인 목적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 님,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 하는 것입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 리가 듣고, 병어리가 말하며, 각색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는 것을 보고 성경이 사 실인 것을 믿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못하시는 게 있다 거짓말을 못하신다

여러분,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압니까? 성 경이 사실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일, 동정녀에게서 예 수가 나신 일, 우리를 위해 예수가 십자가 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 하사 하늘에 오르신 일, 그리고 다시 예 수가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일, 죽음 후 에 믿는 자가 천국에 가는 일... 이성이 나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당연 한 듯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지요, 이것은 전 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 입니다. 이것 역시 사실로 확인될 것입니 다(살전4:17).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 이 복음을 전하러 목숨을 걸고 7월에 다시 지구 반대편인 베네수엘라로 떠납니다.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 객원컬럼 ::

:: 책을 펴다 ::

분별력, 선택이 아닌 필수!

얼마 전, 배우 조인성 씨가 유튜브를 통해 투자 종목을 추천했다는 영상이 올라와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거기에 배우 송혜교 씨까지 투자했다는 영상이 올라오자 삽시간에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됐다. ‘저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추천했다면 뭔가 있지 않겠어?’ 그냥 시중에 떠도는 ‘카더라’ 하는 소문도 아니고, 배우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추천하는 영상을 보자 너도나도 투자 대열에 합류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사기였다. 유튜브에서 열심히 투자 유치를 독려하는 조인성은 사실 AI로 만든 가짜였던 것이다. 전형적인 딥페이크 사기 사건이었다. 무턱대고 따라 투자했다가 낭패를 당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매스컴은 전한다. 짝퐁, 가짜 뉴스, 거짓 정보... 이런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능력이 바로 분별력과 통찰력이 아닐까? 그래서 일천번제를 드린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와 분별력을 구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다(왕상3:9~10). 모르면 당한다. 그래서 무지도 죄인 거다! 때문에 통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성경은 분별력과 통찰력을 갖추지 못하여 비참한 인생을 살다 간 다양한 사례를 우리에게 교훈한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을 분별하지 못하여 결국 낙원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사무엘상 28장에서 사울 왕은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가 귀신을 사무엘의 혼으로 알고 속고 말았다. 사무엘상 25장에서 나발은 할 말, 못할 말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뱉은 다윗의 진노를 샀고, 민수기 16장에 고라와 단 자손들은 나설 때와 물러날 때를 구별하지 못하고 모세를 대적하다 생매장되는 심판을 자초하지 않았던가! 지금껏 간신들과 여인들에게 미혹되어 멸망의 길에 들어선 왕들은 왜 없었겠으며, 믿고 맡긴 부하 직원이 공금을 횡령하여 농락당한 사업가는 왜 없었겠는가! 취업 사기, 부동산 사기, 결혼 사기, 보이스피싱..., 곳곳에서 당신을 노린다. 분별하라, 당신도 예외일 순 없다! 바울은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케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고후 11:3)고 경계하고 있다. 이사야 44장 18절에서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고 했다. 그렇다. 세상 욕심이, 죄악이, 허영심과 거짓됨이 당신의 눈을 가리고,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것이다. 말과 사람을 분별하자. 시기와 장소를 분별하자. 그리고 내게 주어진 기회를 분별하자! 욕심으로 말미암아 받아 누릴 축복을 사기당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자! 그래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예수중심 가족들이 되길 간구한다.

신현명 목사

:: 신양논객 ::

중심에 있는 것과 없는 것

사무엘상 16장에는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러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으로 찾아가는 장면이 나온다. 이새의 아들들 중 장남인 엘리압의 빼어난 용모와 신장을 본 사무엘은 속으로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실 자라고 생각했다. 그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삼상16:7) 대체 그의 중심이 어떠한가에 하나님은 이미 그를 버리신 걸까? 바로 다음 장인 17장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 군대와 싸우게 되는데, 엘리압을 포함한 이새의 장성한 세 아들도 전장에 나서게 된다. 그런데 상대편의 선봉장은 바로 골리앗! 사울 왕도, 이새의 세 아들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 누구도 선불리 그와 맞서려고 나서지 않는다. 그때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왔던 막내아들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고 그와 싸우려고 하자, 만행인 엘리압은 화를 내면서 동생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 여기가 어디라고 왔어? 들에서 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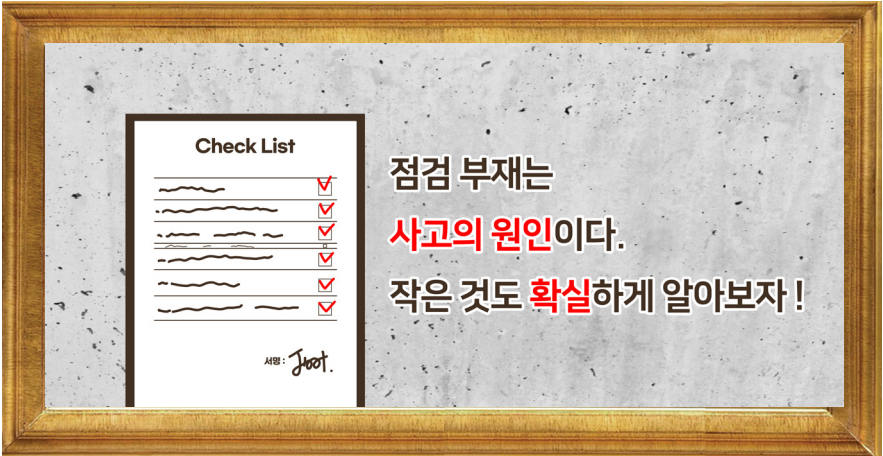
이나 치고 있어야 할 녀석이! 나는 네가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 지 알아. 전쟁이 무슨 구경거리인 줄 아느냐?”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이유는 바로 이 대목에서 드러난다. 그의 중심에는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과 양이나 치던 막넛동생이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죽이겠다며 설치는 것에 대한 못마땅함, 아니꼬움이 있었다. 그러나 다윗에게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은 없었다.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이 가득했던 엘리압은 결국 자신이 업신여겼던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개전장군이 되는 것을 그저 바라봐야만 했다. 하나님이 버리시는 사람과 쓰시는 사람의 차이는 그의 중심에 무엇이 있고 없는가에 달려있다. 가인과 아벨의 차이도, 에서와 야곱의 차이도, 오르바와 룻의 차이도, 가룻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도 그들의 외모가 아닌 중심에 있었다. ‘하나님은 왜 나는 안 쓰시고 저 사람만 쓰시는가?’ 글쎄, 하나님은 당신의 중심에 있어야 할 것이 있고, 없어야 할 것은 없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신혁주 전도사

blessedmic@naver.com

어서 돌아오오

미움보다 무관심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회초리보다 무반응이 더 가혹한 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공포하신 하나님께서 급기야 입을 다무셨습니다. 지독히도 말 안 듣는 이스라엘을 남의 손에 넘겨주시고는 말씀을 거두셨습니다. 달래도 보고, 때려도 보고, 야단도 쳐보고... 그리고 마지막엔 함구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침묵, 어쩌면 가장 큰 형벌인지 모릅니다. 미동치 않는 것이 때론 큰 파도일 수 있고, 침묵이 때론 외치는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의 극치, 타락의 정점, 부정의 절정, 망종의 결정판, 사치의 광란,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두고 여러 가지로 경고하십니다. 지금이 깨달을 시기이며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날이면 우

리는 암흑 같은 길을 가야 하고, 힘겨운 날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지금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등이 보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돌아왔어 버리시면 우리에게는 희망도 없고 소망할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회초리 든 손이 보이는 지금, 한 톤 높아진 음성이 들리는 지금, 우리가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말 안 들을 때 때리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침묵이 있기 전, 패역한 길에서 돌아켜 하나님 품으로 어서 돌아갑시다. 자식을 때리고 편히 자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회초리 속에 우리를 보시고 편치 않으십니다. 그러니 이제 말 좀 들읍시다. 아버지가 분부하신 대로 살아봅시다. 웅달샘 중에서



:: 생명의 말씀 ::

성령세례

미국 인디애나주에 사는 우리 교회 권사님의 친구분이 한국을 방문하셨다가文山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그 친구분께 한국에서는 단 한 번의 주일 예배였다. 그 친구분은 미국에서 40년 동안 교회에 다니셨는데 내가 성령을 받으셨냐고 물으니 받지 못했다고 하셨다. 성령님께서 주일에 교회로 오는 차 안에서 바로 내 옆자리에 앉으시도록 인도하셨다. 나는 자연스럽게 성령세례와 방언에 대해 말씀을 전했다. 아니, 그런데 그날 총회장 목사님의 주일설교(2024. 5. 12) 내용이 모두 성령과 방언에 대한 말씀이 아닌가! 동승한 분들 모두 깜짝 놀라고 말했다. 통성기도 시간에 권사님의 친구분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성령세례를 베풀었다. 나도 울고 권사님과 친구분도 눈물을 쏟으며 기도했다. 성령이 임했다. 40년 넘게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지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셨다. 예배 전에 성령을 받았냐고 물었을 때는 받지 못했다고 대답하셨는데, 예배를 드린 후에는 아주 분명하게 성령을 받았노라고 대답하셨다. 총회장 목사님의 설교를 한 번 듣고 성

령을 받은 다음, 그 친구분의 행보는 우리 교회 권사님께 전해 들었다. 성령을 받고 즉시로 병원에 입원해있는 본인의 친오빠에게로 달려가셨다고 한다. 오빠는 뇌경색으로 의식은 있었지만 전신마비 상태여서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오빠에게 회개 기도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동의하면 눈을 두 번 깜빡이게 했다. 오빠는 눈을 두 번 깜빡이며 예수님을 영접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수 있다’거나 ‘될 것이다’라고 하지 않았다. 성경은 ‘되리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행1:8).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성령 받은 자에게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이다. 우리 권사님 또한 다른 지역에 사는 형제들을 만나서 전도하며 성령세례를 베풀고 총회장 목사님의 전주 집회에 초대했다. 참으로 당연하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성령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살다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가고 싶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총회장 목사님을 본받아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마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하며 기도한다. 장순천 목사

:: 동행하는 삶 ::

:: 빛이 되리라 ::

기질과 성격

둘째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서 진행한 학부모 연수에 참여했다. ‘자녀의 기질과 성격 이해하기’라는 주제로, 자녀의 기질을 이해하면 양육이 훨씬 수월해진다는 내용이었다. 아이도 행복하고 부모도 편안한 육아, 모두가 바라는 육아가 아닐까. TCI 검사라는 것으로 아이의 기질을 알게 되었다. 강사님의 말에 따르면, 기질은 타고난 것이고, 부모 중 한 명에게 물려받은 것이기에 변할 수 없다고 하며, 변한다고 해도 큰 사건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 한다. 반면 성격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어서 기질에 맞춰 양육하면 성격은 저절로 좋아진다고 한다. 사춘기에 접어든 첫째 아이가 생각났다. 자기주장도 강해지고, 친구가 좋은 시기가 첫째 아이에게도 찾아왔다. 사춘기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여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래도 참 쉽지가 않다. 우리 집은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의 기질이 다르고, 나와 남편의 기질도 다르다. 첫째 아이와 같은 기질의 남편은 평소 아이를 잘 이해해주지만 나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 주말에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라도 나가려고 하면, “집이 좋다. 나가기 싫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하여 매번 실랑이가 벌어진다. 기질에는 자극 추구, 위험회피, 사회적 민

감성, 인내력이 있고, 성격에는 자율성, 연대감, 자기 초월 등이 있다고 한다. 보통 자극 추구는 높고 위험회피 요소는 낮은 사람들이 새로운 것에 호기심이 많고 에너지가 넘치는 기질의 사람이다. 위험회피 요소가 높고 자극 추구가 낮은 사람들은 외부 환경이 낯설고 힘들어 집이 가장 편안한 장소라고 생각되어 어디 가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힘들어한다. 나는 첫 번째 기질인 반면, 아이는 후자의 기질이라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연수에서 기질은 바꿀 수 없지만 성격은 기질에 맞춰 양육만 해도 좋아진다는 말이 마음에 와닿았다. 부모는 아이들의 기질을 수용하고 잘 도와줘야 한다. 성격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부모는 아이에게 하는 이야기를 늘 신경 써야 한다. 매일 부모를 통해 아이들은 보고, 듣고, 자라기 때문에 부모의 모델링이 가장 중요하고 말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통해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결정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지지하는 말과 칭찬의 말, 격려의 말을 늘 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아이가 주눅 들어 보이거나 괜찮은지 걱정이 될 때 아이와 대화하며 놀란 척, 모르는 척, 재미있는 척을 해주면 아이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성격 또한 좋게 변한다고 한다.

기질은 타고난 것이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 ‘나는 왜 이럴까?’, ‘저 아이는 왜 저럴까?’ 하고 답답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타고난 기질을 받아들이고 기질에 맞게 양육하면 성격이 좋게 성장할 수 있다고 하니 아이와 부모의 삶이 훨씬 편안해지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도 기질이 순하고 부드러운 사람은 순하고 부드러운 대로, 거칠고 용맹한 사람은 거칠고 용맹한 대로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선물인 기질을 잘 다듬고 악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하도록 자신을 만들어가는 노력 또한 필요할 것이다. 경건에 힘쓰고 경건의 훈련으로 다스려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기질이 잘 발휘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 생각해본다. 기질에 맞는 가르침을 실천하셨던 예수님을 묵상하며 오늘 하루도 아이와 함께 육신각신 힘내고 있을 모든 부모님들에게 영원의 메시지를 보낸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을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요20:27).

정효경 집사
happy_holly@naver.com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출판하게 된 내 책이 하나 있다. 출간하게 되면 출판사에서 해당 책 여러 권을 선물로 주는데 그 책들을 우리 집 한 책장에 가지런히 꽂아 두었다. 그런데 그 책장이 화장실 가는 통로에 있어서 화장실에 오고 가고 할 때마다 책들이 눈에 띄곤 한다. 책이 눈에 띄면 늘상 하는 일이 있다.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듯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많이 팔려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유명인의 눈에 띄지어다!’ 등등으로 명령한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겨나진 않았다. 그냥 늘 판매되던 수준대로 팔리는 정도일 뿐. 특별한 변화는 없었다. ‘이거 괜히 하는 거 아니야? 내 욕심 섞인 바램이라 하나님이 안 이뤄주시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래도 ‘아니야! 끝까지 해보자! 크게 힘든 것도 아니고 오고 가다 말 한마디씩만 하면 되는 일인데 뭐!’하며 최대한 눈에 띄게 팔려나갈지어다! 등등으로 말이다. 책 판매량도 늘었다. 사람들이 많이 읽는 분야의 책은 아니지만 해당 분야에서는 늘 최상위권에 있도록 만들어주셨다. 이번 일로 깨달은 것은 한두 번 명령하고 빨리 안 이뤄진다고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다르고, 끝까지 해내고자 하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 같다. 이렇게 각자가 목표하고 꿈꾸는 일을 놓고 예수 이름으로 꾸준히 명령하자.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때가 맞는 순간에 반드시 응답될 것이다.

장명훈 집사
jjoshua@hanmail.net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계좌 송금 시 성함과 소속교구(교회) 순서로 기입해주세요

:: 주님을 향한 노래 ::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에 출석하여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면 마음에 품는 생각, 입으로 내뱉는 말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품은 생각이 말로 표현되고, 그 말대로 인생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언어라는 씨앗으로 뿌려져 인생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작은 생각, 작은 말이라도 함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2년 전쯤 추운 겨울날, 기도처의 수도가 얼었습니다. 코로나의 여파가 남아있던 때라 교구에서 식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방에 물이 안 나오는 것은 참을만했는데, 화장실까지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급하게 근처 철물점 사장님을 소개받아서 수도 해빙 작업을 부탁했습니다. 장비를 가져와 한참을 고생하시면서 작업을 하셨지만 결국 녹이지 못하고 안 되겠다며 그만 포기하셨습니다.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기술자가 와도 상황은 비슷할 거라고, 적어도 날이 풀리는 2, 3월까지의 기다려야 녹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두세 달을 버티기엔 성도님들이 너무

나 불편해하실 것 같아 다시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교회에 수소문을 했더니 감사하게도 작업하실 수 있는 장로님 한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추운 날씨 탓에 여기저기 동파되는 곳이 많아 바쁘신 와중에도 기도처 일이라는 애기를 듣고 최대한 빨리 와주셨습니다. 작업을 준비하는 장로님 곁에서 걱정스런 마음에 조심스레 여쭙봤습니다. “장로님, 날씨가 워낙 춥고 수도가 언 지 며칠이 됐는데 녹일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장로님의 대답이 정말 우문현답이었습니다. “전도사님! 녹다는 생각을 갖고 작업해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큰 충격을 받았고, ‘역시 총회장 목사님께 배운 장로님이시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도가 언 지 며칠이 지났고 이미 한 분이 포기한 상황이니 안될 수도 있겠다’는 저의 생각과 말을 장로님의 단 한마디가 바뀌버렸습니다. 장로님은 어딜 가든지 막혔던 문제를 해결해온 술한 경험을 갖고 계셨고, 그날도 어김없이 ‘내가 가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생각을 갖고 오신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작업은 잘 마무리되어 수도

는 다 녹았고, 총회장 목사님의 설교를 실제 삶에 그대로 적용하며 실천하시는 장로님의 모습을 보고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천지창조의 역사는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창2:7). 그렇기에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우리 생각과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재앙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렘6:19)라 하셨습니다. 그 부정의 생각과 원망의 말의 결과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았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총회장 목사님의 생각과 말의 결과를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긍정의 생각을 갖고, 긍정의 말을 뿌려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삶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호민 전도사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백지에 떨어진
먹물만 보지 말고 옆을 보라
넓은 여백이 있다
과거의 노예가 되지 말고
미래를 보라
-봉우